

4/27(수) 대상 15-18장 열심과 열정보다 중요한 것

“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
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(15:13)”

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긍정적인 면을 주로 다룹니다.
그럼에도 <웃사 사건>을 상세히 다루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
다윗은 <웃사>에게 문제를 돌리지 않고 <우리>라고 표현합니다.
개인이 아니라 왕을 포함한 백성 모두의 잘못임을 고백한 것입니다.
역대기는 단독자료를 통해 공동체가 지닐 영적 태도를 제시합니다(15:1-24).
<처음부터 끝까지, 철저하게, 하나님의 규례대로>입니다.

❶ 다윗은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합니다.

언약궤를 안치할 장소와 장막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함께 율법을 살핍니다(15:1-2).
명령하신 그대로 레위인을 통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운반하게 합니다(민4:15,7:9, 출25:14).
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여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합니다(15:4-10).

❷ 하나님의 일에는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(15:14-28).

사무엘하는 언약궤 운반, 제사, 춤과 찬양에 있어 다윗에게 집중하지만,
역대기에는 레위인, 제사장, 온 백성들의 역할을 각각 조명합니다.
각자 자리에서 궤를 메고,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합니다.
동참한 백성들은 <아멘>으로 화답하며 찬양합니다(17:36).

하나님은 예배자로서 전심을 다한 이스라엘 백성들과
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(17:1)
<먼 자손 세대(씨, 히)제라>까지 지속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십니다(17:11).

“견고하게 하시며… 견고하게 하시고(17:23-24, 히)아만, 아만”

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불들며 되칩니다.

우리 공동체는 <하나님의 규례대로> 행하고 있습니까?

- ❶ 열심과 열정이 앞섭니까, 하나님의 뜻과 규례를 먼저 묻습니까?
- ❷ 문제에 대해 서로를 탓합니까, 겸비함으로 함께 회개합니까?
- ❸ 각자 제자리에서 기쁨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?